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특수학급반 아이를 챙기며 돌보미 역할을 시작한 이지우 양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7년째 주변의 소외되거나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한때는 왕따 친구들을 챙긴다는 이유로 본인이 왕따를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친구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지우 양의 따뜻한 마음은 폭력이 만연한 학교 문화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을 넘어 우리 사회를 비추는 희망이 되고 있다.

소외된 친구를 위해

“지우야, 선생님이 부탁할 게 있는데...네가 진희(가명)를 수업시간마다 챙겨줄 수 있겠니?”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그 부탁이 이지우 양의 학창시절을 변화시킨 한마디가 되었다. 그날 이후 이지우 양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특수반 아이를 돌봐주는 아주 특별한 ‘돌보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진희는 산만하고 말이 많아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까지도 힘들어하는 특수반 아이였다. 그러나 진희는 유독 지우의 말만은 잘 따랐고, 지우 역시 진희와 같이 다니는 것을 그리 어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한 돌보는 역할은



특수학급반 친구를 돌봐온 이지우 양

4, 5, 6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졌다. 매년 특수학급 학생을 챙기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지우가 돌보는 친구에 대해 심한 욕을 하였다. “개 머리에 이가 있대, 더러운 애하고 왜 같이 다니냐?”며 지우에게 특수반 아이와 같이 다니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곤 했다.

“친구들이 저를 발로 툭툭 치면서 그런 말을 할 때면 솔직히 조금 무섭더라고요. 알고 보면 좋은 친구인데,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은 왕따 친구뿐만 아니라 지우 양도 소외시키기 시작했고, 6학년 무렵에는 지우 양도 혼자가 되었다. 왕따를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우 양은 소외된 친구들의 돌보미 역할을 놓아버릴 수가 없었다. 본인의 의지도 그러했지만 담임교사가 먼저 지우에게 부탁을 해 오곤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지우 양은 담임교사가 말하기 전에 먼저 가서 따돌림 당하는 아

이의 돌보미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아무리 다른 친구들이 만류하고 눈치를 주어도 이지우 양에게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모른 척하는 것보다 돌봐주고 차라리 함께 왕따를 당하는 일이 더 마음 편한 일이었다.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일!

이지우 양이 특수반 아이를 돌보면서 힘든 고비를 원만하게 잘 넘기게 된 데에는 엄마의 조언이 한몫을 했다. 초등학교 때 처음 특수반 친구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담임교사로부터 들었을 때 이지우 양은 엄마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그때 엄마는 머뭇거리기 없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친구도 미워하지 마라”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엄마의 말이 힘이 되어 자기조차 함께 왕따를 당하는 고비도 넘기면서 이제까지 돌보미 역할을 잘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지우 양의 할머니는 이렇게 당시 상황에 대해 회상한다.

“왕따 친구들만 돌보다가 6학년 때는 지우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외롭고 눈물 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서는 왕따 친구 곁에도



포래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증과 생활 속 작은 영웅 수상자 트로피

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중학교에 가서 포래상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래상담부는 왕따 친구나 폭력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동아리였거든요.”

이렇게 이지우 양의 돌보미 봉사는 중학교에 가서도 이어졌다. 특히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돌봐준 적이 있는 특수반 친구와 같은 반이 되어서, 다시 그 친구의 돌보미 역할을 하게 되기도 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3학년에 올라갈 때도 이지우 양과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해서 결국 같은 반이 되었고 이지우 양은 여전히 그 친구 곁을 지키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이지우 양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전처럼 왕따 친구를 돌본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이지우 양에게는 함께 하는 친구들이 생겼다.

“선생님이 돌보미 활동을 하면 봉사시간을 준다고 하셔서 그것을 계기 삼아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같이 돌보미 하면 봉사시간도 받을 수 있고, 친구를 돕는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일반 친구와 소외된 친구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세 명이서 함께 하다가, 지금은 7~8명으로 늘어났다. 소외된 친구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다니고, 같은 팀이 되어 과제도 함께 하고, 수학여행을 가면 짝이 되어 주기도 하면서 그들은 함께 어울린다.

이지우 양의 작은 선행이 주변의 친구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지우 양은 폭력과 집단 문화가 만연한 학교 울타리 속에서 작은 희망의



지금은 6~7명의 친구들이 함께 소외 친구를 보살핀다. 돌보미 역할이 더 즐겁고, 덜 버거워졌다.

불씨를 붙여 주었다.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학교 담장을 넘어 우리 사회를 비춰 주고 있다.

이제 곧 이지우 양은 고등학생이 된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엄마

Interview

이지우 / 특수학급반 친구를 돌봐온 중학생

“웃어만 주어도 위로가 되어요!”

Q. 왕따 친구를 돕는 일이 하기 싫어질 때도 있었나요?

A. 친구들이 왕따 친구랑 놀지 말라고 저를 발로 차고 겁을 줄 때는 무섭기도 해서 왕따 친구를 돌봐주는 일이 순간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건 그때 상황이 싫어서 든 마음일 뿐이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친구들이 무서워서 그때 잠시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게 미안해요.

Q. 본인도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A. 왕따 아이와 붙어 다니다 보니, 결국 저도 왕따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무척 힘들었지만 그저 그 상황을 즐겨 보려고 노력했어요. 도서관 가서 책도 보고 휴대폰으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혼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수학, 과학 성적이 올라서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그걸 보고 친구들이 가르쳐 달라고 제 주변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공부 도우미를 해주면서 다시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죠.

Q. 약한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왕따를 당할까 봐 용기를 못 내는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A. 저도 왕따를 당해봤는데...왕따를 당할 때는 누군가가 저한테 웃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외된 친구와 붙어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저 웃어 주고, 괴롭히지 않는 것만 해도 소외된 친구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Q. 친구를 사귀면서 어떤 때 가장 좋아요?

A. 친구가 저를 믿고 속마음을 이야기해 줄 때가 좋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돌봐주던 특수반 친구와 잠시 멀어진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또 같은 반이 되었어요. 그 친구 도우미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다시 친해지고 언젠가 그 애가 자신의 약하고 힘든 점을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때 무척 뿌듯 하더라고요. 나를 믿고 속마음을 털어 놓은 거니까, 서로 많이 친해진 느낌이었어요. 우리 모두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왕따는 없을 거예요.